

온앙울

경북교육 WEBZINE

Vol.09
2025 봄호

통합성취도 평가 시스템

×
문해

×
성취

×
트렌

×
교육

×
성취



경상북도교육청



Vol.09
2025 봄호

통합성취도 평가 시스템



경북교육 WEBZINE

온방울이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분기마다 발간하는 교육관련 주제 잡지로
몸과 마음을 자라게 하는 방울들이 모여 새로움을 이뤄낸다는 뜻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전체를 이루듯 경북교육의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를 모아 따뜻한 경북교육을 이루겠습니다.

통합성취도 평가 시스템

Special theme

Part 1. 기획

6

01. 학업역량을 기르는 방법 / 김영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n Education

Part 2. 진단

17

01.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성취도 평가 시스템 / 경상북도교육청
02.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치료지원 / 구경미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03. 독서교육과 연계한 문해력+ / 구경미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04. 중3 학업성취 체크중 평가 문항 / 정혜경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05. 수능 마중물 프로젝트 자체제작 경북 모의평가 첫 시행 / 한원구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06. 도전! 꿈 성취 인증제 / 김재원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07. 인천, 읽씹교육으로 삶의 힘을 키운다 / 박희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장학사
08.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온(ON) 시스템 / 최수정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장학사

Community

Part 3. 실천

37

01. 아이의 변화, 선생님의 진심으로부터 / 김지선 성동초등학교 교사
02. 의미있는 시작, 경북 수능 모의평가 문항 제작 / 정지성 문창고등학교 교사
03. 태용이의 바이올린을 위한 도전! 꿈성취인증제 도전기 / 이은결 도송중학교 학부모

Academic

Part 4. 연구

51

01. 경북교육종단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 / 이동욱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연구원



Part
01

기획

Special theme

×
기획

×
학력

×
개념



01

학업역량을 기르는 방법

김영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학업은 학생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삶의 과제이며, 학교는 학생들이 학업을 잘 수행하여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곳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우리의 역할 역시 학생들이 학업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 ‘학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학업과 학업역량의 의미

학업은 학습, 공부 등의 단어와 혼용해서 쓰인다.

학습(學習)은 낯선 것을 배워서 알게 되고 서툰 것을 익혀서 숙달하는 과정을 말하며(Olsen & Hergenhahn, 2009), 경험에 의해 야기되어 비교적 지속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이성진 외, 2009).

학습은 학교교육에서 요구하는 교과내용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포함하며, 때로는 학교의 성취도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와 등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협소하게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 자체의 의미에는 유아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모국어를 배우는 것, 중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농구와 축구를 익히는 것, 성인들이 비즈니스를 위해 외국어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시활용법을 익히는 것, 중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법을 배우는 것 등 개인이 자신의 생존과 번영에 유익한

01

| **학업역량**을 기르는 방법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이재규 외, 2022).

이러한 ‘학습’의 의미는 현대사회의 학습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유치원에서 출발해서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으로 끝나는 단선적인 교육시스템에 집중한 왔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은 생애초기에 많은 것을 학습하고 성장하면 이후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다. 사회가 변화 없이 안정적이라면, 개인은 20대까지 배운 것을 활용하면서 이후의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사회는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하다.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발달 등 기술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세계경제포럼(2020)에서 모든 근로자의 50%는 직무수행을 위해 5년 내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앨빈 토플러는 21세기를 살기 위해 우리는 배우고(learn), 배운 것을 버리고(unlearn), 다시 배우(relearn)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보다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직업을 위한 기술 뿐 아니라 노화와 삶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가 계속 학습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생애초기에 ‘교육을 마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전 생애에 걸쳐 삶과 학습이 하나가 되는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학습(Active learning and learning strategies)’은 미래 핵심역량의 하나이다. (세계경제포럼, 2020;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2022).

이렇게 볼 때, 학업역량은 교과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취수준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으나, 더 넓게 생각하면 ‘학생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최근 대학에서 학생선발을 위해 ‘학업역량’을 측정한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평가항목들을 보면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학업성취도는 교과평가를 통해 확인되는 성취수준이며, 학업태도는 학업을 해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탐구력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도 학생과 학부모는 첫 번째 요소인 학업성취도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그것은 학업태도와 탐구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똑같이 들어도 익숙한 것에 더 주목하고 그것을 더 잘 기억하지 않는가. 하지만 교육전문가인 우리는 실제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현재뿐 아니라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을 우리의 역할, 학교 교육의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이다.

01

학업역량을 기르는 방법

2. 학업에 필요한 비인지적 자원들

어떤 학생이 학업을 잘할 수 있을까? 선행연구들을 보면, 지능이 단일요인으로 학업성취를 가장 잘 예언한다는 주장이 있고, 동기가 더 큰 설명력을 갖는다는 주장도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생의 자기통제력 등이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다. 또 재능보다 노력이 중요하다는 최근 연구도 있다(황매향, 2021). 재능이나 지능과 같은 선천적인 부분이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나, 교육자라면 재능이 없어서 학생이 공부하기 어렵다고 포기하기보다, 변화가능한 요인에 관심을 갖고 학생의 학업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학업 성장에 영향을 주는 자원들 중에 ‘자기효능감’과 ‘학업정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평가와 신념이다. 자기효능감은 여러 메타분석에서 학업수행, 학업지속, 학업성취를 강력하게 예언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시도하고 더 오랫동안 버티며 결국 높은 성취를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신이 해도 잘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금방 포기하며 그 결과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된다.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관계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순환되며 그 영향이 더 커진다.

Bandura(1977)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성공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로부터 형성된다. 이 중 대리경험이란 자신과 유사한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자기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적 설득은 신뢰할만한 사람이 이유를 들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통해 효능감을 갖게 되는 것, 생리적 상태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이거나 정서적인 상태를 통해 자신이 잘하거나 못할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식은땀이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 그런 생리적 상태를 통해 자신이 불안하고 이 일을 잘해내지 못할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원천들은 학업성취와 자기효능감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교육자가 선배의 성공사례를 제시해주거나 칭찬을 하면서 격려하고 편안하게 발표나 시험을 볼 수 있게 조성해 줌으로써 성취수준이 낮더라도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원천은 성공경험인데, 말 그대로 왕년에 공부를 잘해본 적이 있는 학생, 지난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이라면 그것을 토대로 자기효능감을 형성해서 이후의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공부를 쫓 못한 학생,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시험에서 성적을 올려서 ‘이것 봐, 너도 잘할 수 있어’라고 자기효능감을 갖게해 주어야 할까.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자기효능감은 형성되지 않는걸까. 바로 이 부분이 교육자가 전문성을 발휘해야하는 지점이다.

01

| **학업역량**을 기르는 방법

우리가 평가를 하는 과정을 되돌아보면, 무엇을 가르치면 학생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시험을 잘 봐야한다는 가정이 깔려있음을 깨닫게 된다. 가르친 것을 물어보면 학생이 대답할 수 있고, 시험에서 맞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인인 우리만 봐도 배웠다고 다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며,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하기로 목표를 세웠다고해서 매일 지키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면 학생이 시험에서 틀린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맞는 것이 대견한 일이다. 100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주목하기보다, 과거에 몰랐던 것을 알게된 점, 과거에 틀린 것을 맞춘 점, 작년보다 더 성장한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니?’ 하나하나가 학생의 성공이고 성취이다. 관심을 갖고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물으면서 학생도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주목하도록 도움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놓쳤던 학생의 성공경험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2-2. 학업정서

정서는 학업을 포함한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학업정서는 학습, 수업, 성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서이다. 우리는 시험불안을 떠올리면서, 정서는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기억을 형성하거나 복잡한 사고에 몰두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정서적 정보가 큰 역할을 하는 등 정서는 학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학습과 관련하여 학생이 어떤 정서를 느끼는가에는 학업활동에 부여하는 가치,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에 대해(가치)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통제) 즐거움(정서)을 느끼는 반면, 가치가 없는 공부라고 생각하면 잘할 수 있든없든간에 지루함(정서)을 느끼고, 가치가 있든없든간에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좌절(정서)을 느끼게 된다. Pekrun(2006)은 공부를 하는 동안의 감정뿐 아니라 공부를 한 이후 결과를 예상하면서 느끼는 감정, 과거에 이뤘던 학습결과에서 오는 감정 등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지금 공부를 함으로써 미래에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쁨과 기대를 느끼겠지만, 잘될 것 같지 않으면 절망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학업경험에 대해 부정적이고 실패한 경험이 쌓이면 슬픔과 수치심,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학업과 연결된 정서는 우리에게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공부를 하게 만들기도 하고, 공부할 상황을 피하게 만들기도 한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개에게 음식(긍정적 자극)과 종소리(중립적 자극)를 반복해서 제공하면, 어느 순간 음식없이 종소리만 들려줘도 개가 침을 흘린다. 이를 통해 처음에 중립적 자극이었던 종소리가 긍정적 자극과 연합되어 긍정적 자극의 성격을 띤 것을 알 수 있다.

01

학업역량을 기르는 방법

반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왓슨의 앨버트 실험인데, 앨버트라는 어린 아이가 귀여운 흰 동물에 관심을 가질 때마다 아주 큰 소리를 내서 아이를 무섭게 만들면 아이가 흰 물건만 봐도 무서워하며 피하게 된다. 이러한 연합적 학습, 고전적 조건화는 매우 강력하게 우리의 무의식에 작용하여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억될지, 부정적인 경험으로 기억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현재 학업성취가 높은지 낮은지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 수업, 공부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면 그 학생은 살아가면서 이후에라도 공부를 해야할 상황이 되었을 때 기대감과 즐거움, 자신감을 느끼며 임할 수 있다. 반대로 수업에서 늘 주눅들고 실패하고 힘들었다면 더 이상 점수를 내야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할 때,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할 때, 외국어를 배울 때 회피하고 싶고 괴롭고 불안할 것이다. 학교에서 경험한 학업정서가 학생의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학업역량 강화 방법

교육을 통해 학생의 성취수준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학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황매향, 2021).

3-1. 학생의 강점을 활용한다.

우리는 학생의 능력 신장을 위한 목표를 세울 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기 쉽다. 여러 과목 중에 수학을 제일 못한다면 수학공부에 많은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생에게는 적절할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거나 학업에 자신이 없는 학생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에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목표를 세울 때는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금 노력해도 변화와 성장이 눈에 보이면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잘

01

학업역량을 기르는 방법

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잘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성공을 맞고 그 힘으로 좌절이나 실패가 예상되는 어려운 것,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 또 어느 한 부분의 능력이 신장되면 다른 능력들이 신장되는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교육자는 이 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의 강점을 찾고 강점을 활용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이 과정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학업에 몰두하도록 안내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2. 꾸준히 행동하도록 돕는다.

학업은 학생이 일상에서 꾸준히 해야하는 과업이다. 따라서 생각이나 감정, 태도가 변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노력해도 소용없어요’라고 무기력했던 학생의 생각을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바꾸었다면 실제로 노력하도록 행동의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부를 한다고해서 바로 성취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 노력해보다가 역시 안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기 쉽고, 친구와 놀거나 피곤함 등 실천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벽에 부딪힐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교육자는 학생이 바라볼 수 있는 목표를 명확히 함께 세우고, 안해본 도전을 해보도록 용기를 불어넣고,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주면서 응원하고, 여러 유혹과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이 공부를 습관화하고 꾸준히 해갈 수 있다. 한동안 안했던 학생들이라면 더욱 이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3-3. 학생의 성공경험을 찾고, 내면화시킨다.

학생이 공부를 한다고해서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포기하게 되기 쉽다. 이 과정을 돕는 좋은 방법은 학생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함께 찾아가면서 성공경험을 만들고 쌓아가는 것이다.

학업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할 때, 시험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몇 등이 올랐는지에만 주목하지 않고, ‘이전보다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이것은 한두 달 뒤의 시험을 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자주 물을 수 있는 질문이고, 설령 지난 번보다 점수가 낮아지고 등수가 낮아져도 물을 수 있는 질문이다. 학생이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말할 수 있다면 그러한 노력에 대해 칭찬해주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혹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거나, 자신의 노력이 별것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공부하면서 받은 느낌(성취감, 뿌듯함 등)을 묻고, 일정표, 문제지, 교과서 등 공부한 결과물이나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이전보다 나아진 점, 노력하는 부분을 찾고 인정해준다. ‘잘하고 있다’, ‘이전과 다르다’는 증거를 통해 학생이 자

01

학업역량을 기르는 방법

신의 공부행동에 대한 메타인지적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은 이후의 학업에 큰 영향을 준다. 자신의 노력과 성공경험에 대해 명명하고, 변화와 성취가 온전히 자신의 노력 덕분임을 내면화하게 하면, 이후에 학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의 노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다.

3-4.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게 한다.

성공경험을 하게 하는 것, 학업을 경험하고 학업역량을 키우는 일은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학생들 사이에 함께 공부하는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함께 성장하게 할 수 있다. 필자가 수업관찰을 위해 충북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담임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마치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는 것 같은 전율을 느낀 적이 있다. 그 학급에는 경계선 지능과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학습부진 학생이 있었고, 선생님의 수업이나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어느 학생도 그 학생을 따돌리거나 불편해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하셨는데 탄짓을 하면 옆자리 친구가 그 학생에게 연필을 쥐어주면서 문제푸는 시간이라고 알려주었다. 또 학생들이 둥글게 앉아 게임을 할 때(학생들 위치에 따라 사과, 배, 포도와 같은 과일 이름이 지정되어 있고, ‘사과’라고 외치면 사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일어나 다른 자리를 빨리 찾아가는 게임) 이 학생은 게임 규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학생이 자리를 옮겨야 할 때마다 옆친구들이 알려줬고 그렇게 30분이 지날 즈음에는 이 학생도 게임규칙을 이해하고 재미있게 어울릴 수 있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소외시키고 낙인찍을지, 잘하는대로 부족한대로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공부할지에 대한 교실의 분위기, 학교문화는 교사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와 학업에 대한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유해숙 외, 2022).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과거에 공부를 안했더라도 성취수준이 낮더라도 공부를 싫어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을 통해 공부에 도전하면서 조금씩 자신을 믿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업역량을 길러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교육자니까.

〈참고문헌〉

교육부 (2022).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교육부.

유해숙, 김영빈 (2022). 학교사회복지론. 방송대 출판문화원.

이성진, 임진영, 여태철, 김동일, 신종호, 김동민, 김민성, 이윤주 (2009). 교육심리학서설. 교육과학사.

이재규, 김중운, 김현진, 박혜숙, 백미숙, 송재홍, 신을진, 유형근, 이명경, 이자영, 전명남 (2022). 학습상담(2판).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총서. 학지사.

황매향 (2021). 청소년학업상담(2판).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자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Olsen, M. H., & Hergenhahn, B. R. (2009). *학습심리학*(김효창, 이지연 역). 학지사.

Pekrun, R. (2006). The control-value theory of achievement emotions: Assumptions, corollaries, and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8(4), 315-341.



경북교육 WEBZINE



성취

Part 02

진단 In Education

✕
진단

✕
특수

✕
공

✕
문제

01.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성취도 평가 시스템 _ 경상북도교육청
02.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치료지원 _ 구경미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03. 독서교육과 연계한 문해력+ _ 구경미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04. 중3 학업성취 체크중 평가 문항 _ 정혜경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05. 수능 마중물 프로젝트 자체제작 경북 모의평가 첫 시행 _ 한원구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06. 도전! 꿈 성취 인증제 _ 김재원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07. 인천, 읽씹쓰교육으로 삶의 힘을 키운다 _ 박희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장학사
08.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온(ON) 시스템 _ 최수정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장학사

01

경상북도교육청

통합 성취도 평가 시스템

경상북도교육청



① 기초학력

- 성장책임학년제 운영(초1~2)
- 기초학력 및 심리·정서역량 진단검사 실시
-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운영
- 희망사다리 교실 운영
- 다(多)지원학교 운영
- 기초학력 향상 컨설팅단 운영
- 기초학력길라잡이 공동체 운영
- 찾아가는 경계성 지능 및 난독 학습 치료 지원
- 느린 학습자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정책연구 실시
- 에듀테크 활용 개별학습 지원: 배이스캠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
- 두레교(강)사제 운영
- 기초학력 전담교사 활용 순회수업 실시

② 교과학습

- 책임교육학년제 운영(초3, 중1)

-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실시
- 초등 경북학생성장지원 평가 실시
- 체크중(Check中) 자율평가문항 제작
- 학력 성장 프로젝트 방학 집중 아카데미 운영
- 수능 마중물 프로젝트 「경북 모의평가」 자체 개발 보급
- 초등 수업탐구교사 공동체 운영
- 신(新)퇴계 교사단 운영
- 수업나누리(수업지원포털) 운영
- 레벨업! 수능 학습 동아리 운영
- 생성형 AI 기반 생기부 분석 시스템 운영

③ 기초소양

- 책 읽어주는 학부모 운영
- 이솝우화와 함께하는 문해력+ 시리즈 개발
- 수학체험센터 운영 및 수학문화관 개관
- 권역별 수학체험센터와 연계한 수학체험활동
- 지역과 함께 소통하는 수학축제 운영
- 디지털 새싹 운영
- 인공지능(AI)교육센터 운영
- 디지털지식마루 운영

④ 핵심역량

- 역량 중심 특색 교육과정 운영
-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초등)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중등)
- 경북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 도전! 꿈 성취 인증제 운영
- 질문이 넘치는 교실 운영
- 경북형 질문탐구 수업 매트릭스 구축

02

따뜻함으로 경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온도를 높입니다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치료지원

구경미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1. 모든 학생이 함께 출발하고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배움의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출발하고 성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지원-평가’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학습지원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촘촘한 지원을 통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의심으로 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경계선 지능과 난독이란?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인 학생으로, 지적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교생활과 학업 등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또래 관계 지원을 포함한 사회정서 학습이 필수적이며 학습지원대상 학생과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02

따뜻함으로 경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온도를 높입니다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치료지원**

난독 학생은 정확하고 빠른 단어 인지의 어려움과 해독 능력의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다. 단어를 읽을 때 정확성이 떨어져 소리내어 읽기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자기 학년 수준보다 읽기 속도가 느리며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나.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다.

지난해 11월 경상북도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이 조례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맞춤형 지원 강화로 학생의 자신감을 더하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난독 치료 지원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원받은 학생의 95%가 한국어 읽기 검사 등에서 한글 해독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가.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선별검사와 심층 진단, 맞춤 지원,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나. ‘찾아가는 경계선 지능 및 난독 학생 치료지원’ 사업을 확대해 전문적인 개별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난독과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심층 진단과 치료지원, 학부모 상담 등에 대한 비용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지원한다.

다. 교원 연수 강화로 교원들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연수와 상담 기회도 확대해 가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

마.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 도서관, 교육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바. 디지털 기반 교육 확대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03

경상북도교육청 문해력+ 시리즈로 문해력 UP! 사고력 UP!

『독서교육과 연계한 문해력+』

구경미 경상북도교육청 유치등교육과 장학사



1. 미래 사회와 학생의 문해력

급변하는 사회에서 문해력은 단순한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정보를 해독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소통하는 능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에서 문해력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및 미래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문해력 격차를 해소하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문해력 자료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2. 독서교육과 연계한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

독서는 어휘력, 독해력, 비판적 사고력 등 문해력의 핵심 요소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

03

경북교육청 문해력+ 시리즈로 문해력 UP! 사고력 UP! 「독서교육과 연계한 문해력+」

다. 독서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어휘와 문장 구조를 접하고,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독서 자료를 제공하여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3. 학생 문해력 교육을 위한 웹 콘텐츠 개발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 문해력 신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요구에 따라 학생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독서교육과 연계한 문해력+」 웹 콘텐츠의 단계적 개발에 나섰다. 콘텐츠는 「이솝우화와 함께하는 문해력+」를 시작으로 「동화와 함께하는 문해력+」, 「고전과 함께하는 문해력+」까지 순차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가. 시리즈 I 「이솝우화와 함께하는 문해력+」

초등학교 1~2학년용으로 개발된 「이솝우화와 함께하는 문해력+」는 흥미 있고 교육적인 내용의 이솝우화를 듣고 읽으며 퀴즈 풀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해력 신장을 도울 수 있는 웹 콘텐츠이다.

나. 시리즈 II 「동화와 함께하는 문해력+」

초등학교 3~4학년용으로 개발하는 「동화와 함께하는 문해력+」는 유익한 동화를 듣고 읽으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문해력 신장을 도울 수 있는 웹 콘텐츠이다.

다. 시리즈 III 「고전과 함께하는 문해력+」

초등학교 5~6학년용으로 개발할 「고전과 함께하는 문해력+」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는 다양한 고전을 접하면서 사고하고, 읽은 내용에 관련된 활동을 통해 문해력 신장을 도울 수 있는 웹 콘텐츠이다.

4. 경북교육청 문해력 웹 콘텐츠 구축

미래 사회는 영상, 인공지능 생산물 등 디지털 정보를 제대로 읽고 판단할 수 있는 확장된 문해력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 사회를 살아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AI 디지털 교육자료 지원 등 진화된 학습 환경에서 문해력을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새로운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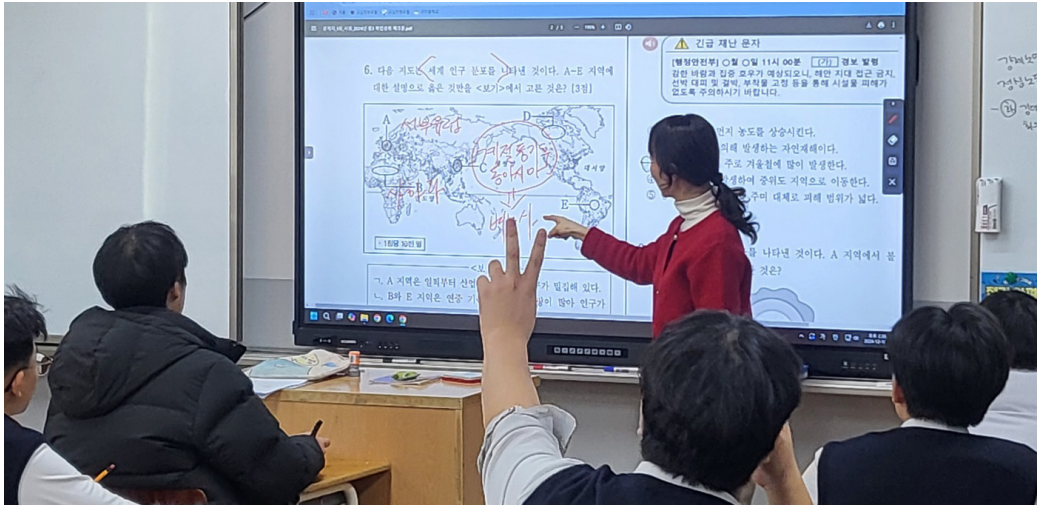
경상북도교육청은 단계적인 경북 문해력 웹 콘텐츠 구축으로 기초 소양 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초등 학생의 문해력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4

연속적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3 학업성취 체크중 평가 문항

정혜경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2025학년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학교 교육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학교에는 자유학기 개편, 학교자율시간과 진로연계교육의 도입 등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변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본격적인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이번 신입생들은 개편된 대입을 치르게 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24년도에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입학하여 빠르게 적응해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중3 사회·과학 학업성취 체크중 평가 문항」을 제공하였습니다.

「중3 사회·과학 학업성취 체크중 평가 문항」은 개편되는 대입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2024년도 중3 학생들을 위해 중학교 사회 및 과학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능형 문항으로 제작한 자료입니다. 도내 중·고등학교의 역량있는 교사들이 모여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3회 분량의 문항과 해설지를 개발하고 해설 영상을 제작하여 2024년 12월에 도내 전 중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은 문항을 온라인 평가 시스템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12월은 중3 학생들이 전환기 진로연계교육의 일환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제공된 「중3 사회·과학 학업성취 체크중 평가 문항」은 교과 연계 진로 프로그램

04

연속적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3 **학업성취 체크중 평가 문항**

램으로 전환기 진로연계교육의 프로그램을 진로체험 활동에서 학업 및 상급학교 적응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중학교 사회·과학 선생님들은 「중3 사회·과학 학업성취 체크중 평가 문항」을 활용해 중3 학생들이 사회 및 과학 교과와 성취수준을 점검하고 고등학교 학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3 사회·과학 학업성취 체크중 평가 문항」을 활용한 선생님들은 자료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3년간의 교육과정 내용을 총정리하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과 유사한 문항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2024년도는 「중3 학업성취 체크중 평가 문항」을 사회와 과학 교과와 문항만 제작하였지만 2025년도에는 교과를 국어, 영어, 수학도 포함하여 5개 교과의 문항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도 우수한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착실히 준비하여 12월에 중3 학생들이 교과 시간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3 학업성취 체크중 평가 문항」은 진로연계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교수·학습 자료 제작에 대한 업무를 줄이고 수준 높은 자료를 도내 전 중학교에 제공하여 중3 학생들을 위한 상급학교 진학 지원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자료를 제공하여 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05

경북 선생님들의 열정, 그 결과물 수능 마중물 프로젝트 자체제작 경북 모의평가 첫 시행

한원구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는

2028 대입 개편에 따라 융합형·통합형으로 시행되는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도에 처음으로 경북형 수능모의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북 모의평가”를 직접 출제하고 시행하였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경북 학생들에게 맞는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이 시급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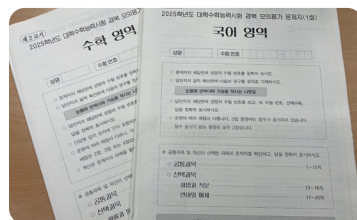
고, 시기적으로 모의평가와 수능 직전에 실전 연습을 하기위한 모의고사의 필요성으로 기획되었다. 또한, 경북의 수능형 문항 개발 역량강화를 통한 출제 전문가 그룹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에 도내 국어, 수학에 우수한 교사 중심으로 출제위원단을 모집하여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직접 출제하시는 교수님을 초빙하여 출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수를 진행하며 역량을 키워갔다.

두 차례의 합숙 동안 치열한 토론과 격렬한 논쟁을 통해 수능형 문항을 개발하던 선생님들은 ‘힘은 들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는 완벽한 문제를 만들고 싶다!’라며 학생들을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문제에 담겼다.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아 완성한 2회차의 ‘경북 모의평가’는 8월 29일과 10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일반계고, 자율고 및 일부 특목고 총 128교에서 동시에 실시하였다.

시험을 치른 학생과 선생님들은 평소 마무리 연습에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활용했는데 이번에 실시한 ‘경북 모의평가’는 기존에 나온 어떠한 사설 모의고사나 타지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보다 문제의 완성도가 높았다고 극찬을 했다. 또한, 실제 6월 모의평가가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능에서는 쉬운 난이도가 될 것이라며 거기에 맞춰 출제하자는 출제위원장의 방침이 정확히 적중하면서 실제 수능과 거의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되면서 학생들의 마무리 실전 연습에 아주 적절했다는 반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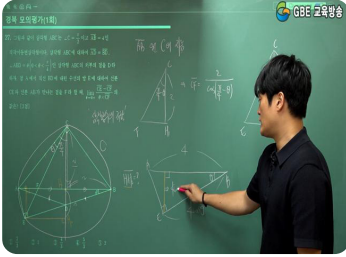
더욱 대단한 사실은 실제 대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된 고전 소설 ‘정을선전’이 ‘경북 모의평가’ 1회에 동일하게 나와있으며, 심지어 출제 의도까지 같이 나왔다. 또한, 각 영역의 적중률은 분석한 결과 54.5%에



05

경북 선생님들의 열정, 그 결과물 **수능 마중물 프로젝트 자체제작 경북 모의평가 첫 시행**

달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자체 분석 결과 이는 출제 위원들이 기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연계 교재 및 출제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생한 것으로 경북 선생님들의 대단함을 엿볼 수 있었다.



출제위원 선생님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능에 더욱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출제위원 직강의 ‘경북 모의평가 해설강의’를 촬영하였다. 처음으로 서보는 카메라 앞이지만 자신이 출제한 문제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였으며, 시기별 맞춤형 영역별 학습 사항까지 안내하며 학생들이 아무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다.

이런 출제위원 선생님들의 열정은 실제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사설 모의고사보다 완성도 높은 문제를 출제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에서는 2025년도에도 2차례 시행하고, 과목도 추가하며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도내 전체 선생님들에게 공모 문항을 받을 예정에 있어 경북 선생님들의 전체 역량을 증진 시킬 계획에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계기로 △파워UP! 수능 마중물 프로젝트: 경북 모의평가 자체 개발·보급 △레벨UP! 수능 학습 동아리 운영 △시스템UP! 학력 성장 프로그램: 방학 집중 아카데미 △스마트UP! 생성형 AI 기반 생기부 분석시스템 개발의 프로젝트를 올해 시행하면서 “2025년, 학력향상 혁신의 해”로 삼고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학력UP
2028 대입
걱정 NO!
진학
역량 강화
프로젝트

파워UP! 수능 마중물 프로젝트
-경북 모의평가 자체 개발·보급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북 모의평가 2회(8,10월)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수능형 문항 개발
도내 우수교사 65명 직접 출제
<GBE 교육방송> 해설 영상 안내

지역 대학 연계 방학 중
학습 성장 프로그램 운영
(수능최저, 정시대비)
교사 중심 수능 심화특강, 학습법 특강
(수시 대비) 진로 관련 대학교수 특강
진학지원단 상담, 우수 졸업생 1:1 멘토링

시스템UP! 학력 성장 프로젝트
-방학 집중 아카데미

레벨UP! 수능 학습 동아리 운영

단위학교 교사 중심 수능 직전
마무리 심화 학습 특강 운영
모의고사 교재 구입 지원
교별 3강좌, 100교 3억 지원

생성형 AI 기반 면접 문항 추출
생성형 AI 기반 분석 시스템 개발을
통한 교원 진학지도 역량 강화
AI 적용 분석 및 시각화 자료 제공
AI 적용 비교과 텍스트 분석

스마트UP! 생성형 AI 기반
생기부 분석시스템



06

도전과 성취로 나의 꿈을 찾아가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

김재원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도전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끼고 더 성장했음을 스스로 느껴요!”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 인증식에서 어느 한 학생이 밝힌 소감이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도전 과제를 선정하고 꾸준히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인성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2019년 6교의 학교장 인증제를 시작으로 2022년 교육장 인증제 전면 시행을 거쳐 2023년 교육감 인증제 시행을 통해 자리를 잡아왔다. 현재는 578교 학교장 인증제, 22개 교육장 인증제 그리고 7개 프로그램의 교육감 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인증제의 7개 프로그램은 인문 영역의 ‘책쓰는 아이들’, ‘우리땅 독도 지킴이’, 봉사 영역의 ‘탄소중립 100일의 도전’, 체육 영역의 ‘트레킹 경북속으로’, 예술영역의 ‘꿈 챌린지’, 통합 영역의 ‘청소년 CEO 창업 프로젝트’ 그리고 외국어 영역의 ‘English Speak U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면서 참여하고 있다.



〈꿈다락 챌린지〉



〈우리땅 독도 지킴이〉



〈트레킹 경북속으로〉

2024년 기준으로

교육감 인증 프로그램 7개 도전과제 인증 누적인원은 총 761명이며 그 중에서 금·은·동장 교육감 인증 누적인원은 금장 47명, 은장 47명, 동장 183명으로 총 277명이다. 특히 금장, 은장, 동장의 인증서를 받는 학생들은 매년 연말 인증식을 개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전 과정을 살펴보고 도전 결과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06

도전과 성취로 나의 꿈을 찾아가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

특히 2회째를 맞이한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 인증식’을 통해 현장의 생생하고 뜨거운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참가한 학생들의 표정에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가득했으며 학부모는 자녀들을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워 했다.

한편 이번 인증식은 자랑스러운 인증서 수여식 외에도 4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도전 과정을 발표하는 ‘나의 도전 성장기’와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인증제와 연계하여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체험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2025년에는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으로 교육감 인증 도전 과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문해력 강화를 위해 ‘(가칭)문해력 인증제’를 운영한다. 문해력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도전과제를 선택하여 해결하면서 문해력에 대한 학습효과 뿐만 아니라 도전을 통한 자아존중감도 함께 기르고자 한다. 동시에 축제 형태로 계획하고 있는 ‘문해력 인증 골든벨’을 도전 과제로 제시하여 모두가 함께 즐겁게 참여하는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분야 ‘창의융합에듀파크 스탬프 투어’ 인증제도 함께 운영된다. 이는 기존에 운영하던 창의융합에듀파크 스탬프 투어에 인증과제 및 인증 절차를 보완하여 디지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안목과 인성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2025년의 도전! 꿈 성취 인증제.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있게 다가갈 것이 분명하다.

07

인천, 읽견쓰교육으로 삶의 힘을 키운다**- ‘관찰-질문-탐구-행동’의 읽견쓰 학습역량을 바탕으로 -**

박희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장학사

읽견쓰교육의 첫걸음

읽견쓰교육의 읽견쓰는 읽기, 걷기, 쓰기의 첫 글자를 조합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혁신적인 교육정책 브랜드입니다. 인천은 2019년 ‘책 읽는 도시, 인천’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책 읽는 도시 인천, 글 쓰는 인천’ 정책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읽기와 쓰기의 독립적인 학습 행위를 연결하기 위해 2023년,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님께서 ‘걷기’를 제안하시며 읽기와 쓰기를 걷기로 연결하는 ‘읽견쓰’가 완성되었습니다. 읽기와 쓰기에 걷기가 들어감으로써 읽견쓰는 세상과 학교, 학교와 세상을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읽고 걷고 쓰면서 질문하고 상상하는 힘을 키우고, 나다움과 인간다움을 사유하고 실천하자는 것이 읽견쓰교육의 출발입니다.

읽견쓰교육의 발돋움

인천교육은 앓과 삶이 분리되어 대학에 가는데 필요한 공부, 취업하는데 필요한 공부,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공부, 어울려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가 각기 다른 현실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구호에서 벗어나 실제 삶의 힘이 되는 배움을 현실에서 펼치고자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인구 절벽과 기후 재난 등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대전환이 절실하다는 견해를 부정하는 입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교육을 통해 삶의 힘을 길러야 한데 이견이 없었지만 대입제도의 견고한 아성은 여전히 학교교육의 성패를 재는 유효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신체 건강과 사회정서적인 위기 극복, 기초 소양 함양, 관계 맺기 등 학교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기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질문하고 상상하는 힘을 키우는 읽견쓰교육이었습니다.

기존의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현재도 미래도 담아낼 수 없다는데 전문가의 이론도 보태졌습니다. 앓과 삶이 연결되는 교실, 배움의 방법이 삶의 방식에 통합되는 학교, 배움의 결과가 이해를 넘어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실현하자는데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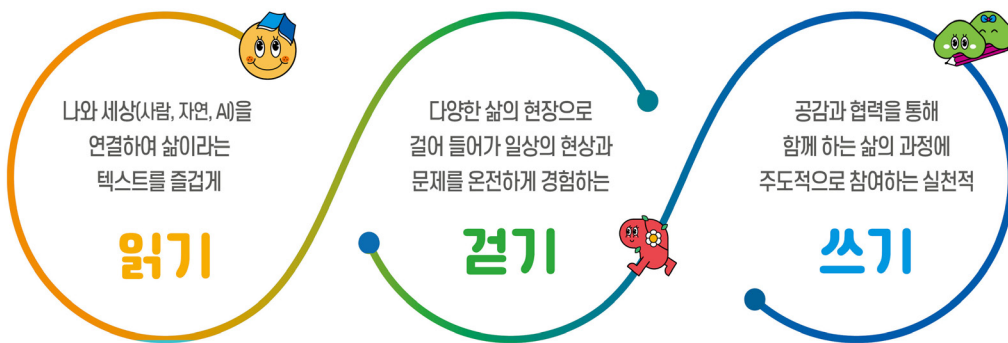
2023년 읽견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급변하는 시대에 개인과 사회의 성장을 촉진하는 미래 역량과 교

육을 주제로 대화에 대화를 거듭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대상 총 14회 3,000여명과 함께 대 토론회를 열고, 대학 교수 및 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숙의토론토 장기적으로 지속해 체계를 다졌습니다.

읽건쓰교육의 도약

읽건쓰는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입니다. 읽건쓰는 단순히 읽고, 걷고, 쓰는 분절적 행위를 넘어섭니다.

의미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읽기는 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사람의 마음, 자연 등 나와 세상을 연결하여 삶이라는 텍스트를 읽는 것을 뜻합니다. **걷기**는 단지 걷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일상의 현상과 문제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쓰기**는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 하는 삶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대화, 표현, 소통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읽고 걷고 써도 되지만 읽고 쓰고 걸어도 되고, 걷고 읽고 써도 됩니다. 읽건쓰교육은 통합적 학습 경험을 통해 교육이 학교에만 머물지 않고,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드는 실천적 교육으로 삶의 힘을 키우는 진짜 공부입니다.



읽건쓰교육, 교육과정 속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올해, 우리 인천교육은 읽건쓰교육이 실질적인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속으로 스며드는 읽건쓰교육을 지향합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학교를 삶으로: 읽건쓰

교육의 개념적 틀에 관한 기초 연구^{*}에서 제안된 4P기반 읽건쓰 학습 맥락 및 역량을 바탕으로 삶과 연계된 학습, 깊이있는 학습으로서의 읽건쓰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적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읽건쓰 4P기반 학습역량

- ◉ **관찰** 삶의 다양한 현상^{Phenomenon}을 관찰하는 능력
- ◉ **질문** 일상 속 복잡한 문제^{Problem}를 탐구 가능한 질문으로 구성하는 능력
- ◉ **탐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과업^{Project}을 계획하고 탐구하는 능력
- ◉ **행동** 삶의 중심에서 배움을 생각하고 실천^{Practice}하기 위해 행동하는 능력



이를 위해 2024년, 관찰-질문-탐구-행동에 기반한 읽건쓰교육 과목을 개발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초등 학교자유시간 과목으로 「읽건쓰와 창의력」(4학년, 29차시), 중등 학교자유시간 고시외과목으로 「읽건쓰와 지속가능발전」(1학년, 34차시), 「읽건쓰와 인공지능」(2학년, 34차시) 총 3개 과목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했으며, 「4P-학습역량 신장을 위한 읽건쓰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중등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읽건쓰와 창의력」(초4)



「읽건쓰와 지속가능발전」(중1)



「읽건쓰와 인공지능」(중2)

* 조병영(2024). 학교를 삶으로-읽건쓰 교육의 개념적 틀에 관한 기초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 개발 자료는 [인천교육e-book\(http://edubook.ice.go.kr\)](http://edubook.ice.go.kr),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07

인천, **읽건쓰교육**으로 삶의 힘을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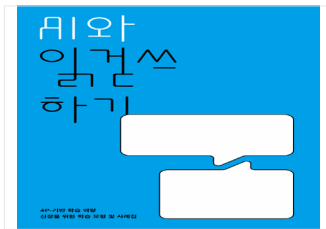
「읽건쓰와 지속가능발전」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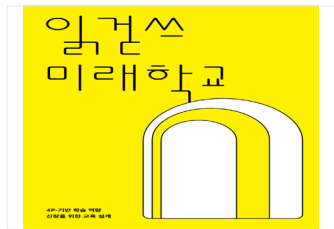
「읽건쓰와 인공지능」가이드북



「SDGs로 읽건쓰하기」



「AI와 읽건쓰하기」



「읽건쓰 미래학교」

학생의 학습역량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역량을 함양하는 읽건쓰교육은 품격있는 교육도시 인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 참여해 출판한 책은 총 4,625권, 저자는 7만5천명에 이릅니다. 또한 읽건쓰 3대 축제로 새얼백일장, 한글날행사, 시민·교육공동체 걷기 한마당이 인천의 문화 축제가 되고, 지난 12월에는 세계한인태권도 사범협회와 업무협약 및 읽건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인천의 읽건쓰교육은 혁신적인 교육 모델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읽건쓰교육 ‘함께, 연결’

우리 인천교육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비전으로 읽건쓰기반의 울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을 지향합니다. 읽건쓰를 기반으로 전인적 성장을 이끌고(울바로), 저마다의 잠재력을 키워(결대로),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세계로) 교육을 역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된 세상에서 나다움과 인간다움으로 공동체성을 키우는 읽건쓰교육은 우리 인천교육의 철학이자 내용이며 방법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사람 즉, 애기애타(愛己愛他)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불확실성의 급변하는 사회, 갈등은 심화되고 혼란과 각자도생이 만연한 사회에서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는 길입니다. 인천을 넘어 전국에서, 세계에서 읽건쓰교육을 실천하며 세상을 읽고,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며,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세계 시민과 함께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08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온(On)시스템

최수정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장학사

교육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격차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기초학력 보장법」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과 계획의 핵심 목표는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학습 부진을 조기에 진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지원 방식만으로는 학습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학습 속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학생의 기초,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출발선이 평등한 배움과 성장지원을 위한 디지털 기반 맞춤교육 시스템인 온(On)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온(On)시스템은 기초학력보장법(2022.3.25. 시행) 이후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충남교육청의 핵심 정책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출발선이 평등한 배움과 성장 지원을 위한 디지털 기반 맞춤교육 시스템이며 2022년 첫 개발이후 현재 확산 활용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에서 개발한 온(On)시스템은 모든 학생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한글 해득을 지원하는 「온한글」,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온채움」,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는 「온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 수준을 진단하고 한글 해득이 느린 학습자에게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교육을 지원



하는 한글 해득 시스템이다. 1년에 3회 단 순 진단만 하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학생 및 교사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진단 이후 한글 해득 수준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유형별 분석 결과 및 진단 결과의 유형과 영역에 따른 맞춤형 보정자료를 자동으로 연결하여 한글 해득 완성을 종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08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온(On)시스템

「온채움」은 학습부진의 인지·정서·행동 원인과 학습수준을 진단하여 정서·행동의 안정적 발달과 기초학력 향상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정밀 진단을 통해 학생의 학습저해 요인(5개 유형)과 현재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또한「온채움」시스템 내에서 학교와 교육지원청, 외부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지원 및 학생 관리가 이루어지며, 개인별 교육지원 및 성장 이력이 관리되어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기초학력 안전망이 구축된다.



「온생각」은 교과 수업에 필요한 언어능력(의사소통)과 문해력 신장을 위한 교과서 기반의 사고도구어를 익히는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이다. ‘사고도구어’란, 글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언어능력(의사소통) 신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단어이다. 충남교육청은 인하대학교(교수 신명선)와 협력하여 초·중등 교과서 총 361권의 내용분석(총 어절 수 2,665,037개, 총 단어 수 376,995개)을 통해 사고도구어 1,387개를 추출했고, 이를 토대로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학습자료와 온라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휴대폰 기반 시스템이다.

08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온(On)시스템

「온평가」는 충남교육청이 자체 구축한 컴퓨터 기반(CBT) 평가 문제은행으로 성취수준, 영역별, 난이도에 따라 문항을 제공하고, 평가 결과의 수집, 분류, 저장을 통한 학생 이력 관리로 맞춤형 평가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2월까지 CBT문제은행 시스템 개발 및 문항검토가 완료되어 2025학년도부터 2~6학년 학생들이 총 16,887개의 개발된 문항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2025학년을 준비하며 학교 현장에 밀접한 온시스템 활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등은 온(On)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등은 온(On)시스템 활용 책임교육학년제 안착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의 예방지도 지원을 목표로 온(On)시스템이 꼭 필요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학력은 모든 학생이 평등한 출발선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핵심 요소이며,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수적이다.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온(On)시스템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법 및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한글 해득을 지원하는 「온한글」, 학습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온채움」, 문해력 신장을 돕는 「온생각」, 맞춤형 평가를 제공하는 「온평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초학력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교육청은 온(On)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기본학력을 탄탄히 갖출 수 있는 보다 공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온(On)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학습 지원이 미래 교육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Part

03

실천

Community

×
성취

×
도전

×
교육

×
만남

01. 아이의 변화, 선생님의 진심으로부터 _ 김지선 성동초등학교 교사
02. 의미있는 시작, 경북 수능 모의평가 문항 제작 _ 정지성 문창고등학교 교사
03. 태용이의 바이올린을 위한 도전! 꿈 성취 인증제 도전기 _ 이은결 도송중학교 학부모

01

아이의 변화

선생님의 진심으로부터

김지선 성동초등학교 교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학년 담임인 저는 매일 듣는 말입니다. 평소와 같이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차분히 단계별로 알려주었지만, 돌아오는 아이의 말은 다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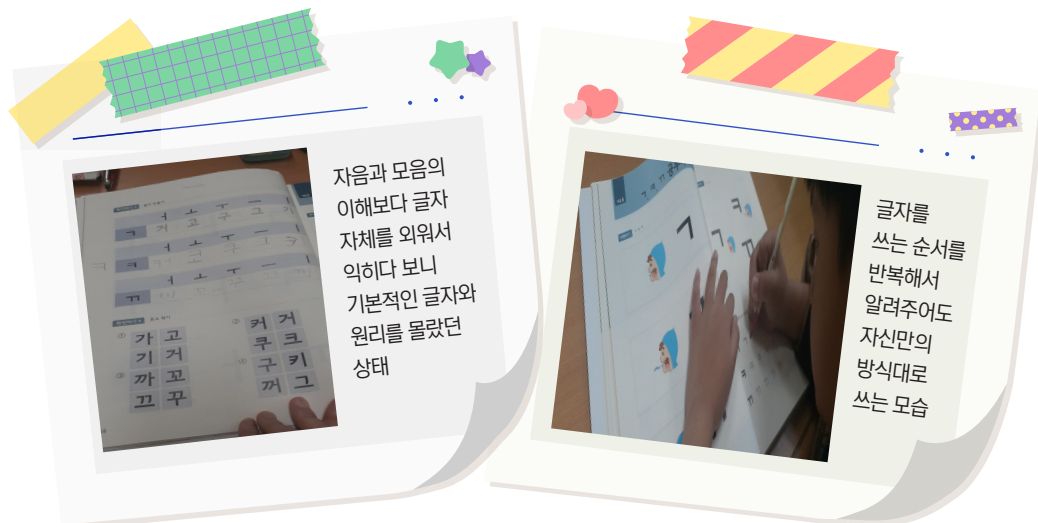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학기 초라 아이의 성향 및 학습상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지만, 그 외에도 이 아이에게는 학습적인 측면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수업 중 아이는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연필을 쥐지 않고 먼 곳을 응시하였습니다. 또한 가만히 자리에 있지 못하고 책상 밑, 창가 근처 등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산만하게 굴기도 했죠.

교과서 글자를 읽을 때, 아이는 "가 가 거 겨 고 교" 라고 혼잣말을 하며 글자를 그림으로 인식해 읽었습니다. 그림을 보고 단어를 유추하여 전혀 다른 단어를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수업 중 "1번 밑에 '마음을 쓰면 돼.'"라고 하면, 한참 생각하다 "어떻게 써요? 저 못해요"라고 대답하며 시도조차 하지 못했죠. 이 아이는 혼자 화장실이나 다른 교실을 이동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등하고, 이동 수업 때도 보호자나 교사의 도움 없이는 혼자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01

아이의 변화, **선생님의 진심으로부터**

아이의 머릿속은 고장이 난 컴퓨터와도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팝업창’이 떠 있어 수업에 집중하기에 어려웠고, 마음속에는 혼났던 기억으로 두려움과 불안함도 함께 존재했었죠.

저는 아이의 이러한 상황을 학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상담해야겠다고 느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부모님은 아이에 대해 관심이 많고,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학습지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기에 그 방법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가정에서의 지도가 효과적일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때 드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과 지원이 뭘까?’

저는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기초학습을 진행하고, 미리 신청해 두었던 1:1 학습코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와 학습코치 선생님은 매주 아이의 발달상황을 함께 이야기하며 아이의 힘든 점을 상세히 피드백하고, 아이와 학부모님께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였습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교육은 주의집중력 개선과 난독지원 및 경계선 지능 관련 검사와 치료였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학부모님께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상담하였습니다.

수업 과제를 단계별로 1개씩 수행하여 작은 일에 대한 성취를 복돋아주었습니다. 글자 하나, 문장 하나를 읽는 데 집중하도록 순회지도하고, 긍정적 칭찬 등의 강화물을 사용해 아이가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학부모님과 일주일에 1번씩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학부모님은 아이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학부모님 사이의 라포가 형성되어 아이의 지원에 대해 천천히 권유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01

아이의 변화, **선생님의 진심으로부터**

더욱이 학부모님, 학습코치 선생님, 기초학력지원센터 상담전문 선생님과 회의를 마련하여 아이의 청각 난독 의심, 발음교정 및 언어치료 필요 등의 문제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위클래스 선생님께 검사비 지원 및 검사기관 안내를 요청하여 학부모님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려 노력하였습니다.

상담 중 아이의 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러는지 아리송해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알면 지금보다 더 분명히 아이를 도와줄 수 있어요. 아이가 외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의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지능 관련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은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아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뭘지 정확히 알게 된다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더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가 괜찮지 않다는 것에 대해 불안한 학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들어드리며 설득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저와 여러 선생님의 협력으로 아이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였고, ADHD 진단을 받아 약 복용 및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될 때, 아이는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01

아이의 변화, **선생님의 진심으로부터**

집중력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문장을 읽을 때, 기본적인 자모음을 구별하기 시작했고, 받침 있는 글자까지 읽고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급에서 진행하는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맞는 날도 생겼습니다. 게다가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시제도 읽어 시간 개념도 학습하였죠.

아이가 혼자 교실을 이동하거나 교실 안에 혼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선생님이 교무실 다녀올 테니까 교실에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며 자리를 잠깐 비우고 돌아오면 잘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님도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에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약을 복용한 이후 주의집중력이 향상되어 가정에서의 지도도 원활하다고 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직 경계선 지능의 아이에게는 사회성, 정서적 어려움, 강박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잘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 선생님들의 진심어린 협력과 지원, 학부모님의 마음의 변화가 없었더라면,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의 아이를 맡으며, 아이가 잘 컸으면 하는 진심에서 나오는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계선 지능, 난독, 주의집중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의 어려움을 천천히 이해하며 1년 동안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향한 진심과 사랑으로 해결한다면 저의 경험처럼 아이에게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학교 현장에서도 여전히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시는 수많은 선생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02

의미있는 시작,

경북 수능 모의평가 문항 제작

정지성 문창고등학교 교사



솔직히 처음 경북형 수능 평가 문항 출제진을 모집한다는 공문을 봤을 때는 바쁜 업무 때문에 망설여진 것이 사실이다. 경북의 모든 수험생들이 내가 낸 문제를 풀고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기대감이 생겼지만 출제에 참여했을 때 예상되는 출장을 비롯한 업무들이 부담감으로 다가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 고민 중에 우연히 국외 출장을 가는 비행기에서 중등과장님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이때 나는 대화와 옆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의 추천으로 출제진에 합류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번 출제는 필연같은 우연이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니었을까…….

1. 평가에 대한 고민과 참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이 부각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을 때 즈음이었다. 고등학교 교사에게 입시의 영향력을 쉽사리 무시할 수 없고 비평준화 지역에서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 해의 대입 입시 결과는 다음 해의 고등학교 신입생 유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상관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교사가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의 성장이 보장되지 못하는 입시 교육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늘 고민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성장과 입시 현실을 적절히 접목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 방식에 관심이 생겼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내신평가 및 수행평가는 물론 대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02

| 의미있는 시작, **경북 수능 모의평가 문항 제작**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때마침 기회가 생겨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평가 팀에 합류하여 경북만의 평가 문항 제작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2. 평가과정과 어려움

막상 평가 문항을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국어와 수학 모두 1팀과 2팀으로 나누어 각각 1회 분량의 문항을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어의 경우 1팀당 8명의 교사가 공통영역인 문학과 독서 34문항을 비롯해 선택 영역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각 11문항씩 총 56문항을 만들었다. 각 영역별로 특성과 장단점이 있어 어느 영역이 특히 쉽거나 어렵지는 않았지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쉽지만은 않은 고민과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어렵고도 소중한 것처럼, 지난 한 해 많은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물들은 경북에서 수능형 평가 문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문학에서 고전과 현대, 비문학에서 인문, 사회, 과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등을 팀별 논의를 통해 적절하게 배분하고 검토는 모든 출제자가 전영역을 함께 진행했다. 내가 맡은 부분은 독서에서 과학·기술 부문이었다. 우선, 수능 연계교재인 ‘수능특강’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문을 활용하여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기술을 암호화폐의 원리와 비교, 분석하는 지문을 작성했다. 그리고 지문을 내용을 활용하여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적용과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했다. 연계 교재 내용 중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출제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다른 지문에서 다루는 과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내 스스로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논문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전문적이다 보니 교사는 물론이고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논문을 읽을 때는 의미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것처럼 느꼈는데 출제를 위해 근거들을 확인하면서 읽다 보면 논문 안의 문장이나 내용 연결이 부정확하여 출제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과학 및 기술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접목되는 상황이라 시기적으로 논문이 조금 오래되었다고 판단되면 지문을 구성하거나 문항 설계를 위해 2, 3차 검증의 과정이 필요한 것도 어려움이었다. 논문 작성 시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논문의 내용을 문항 구성을 위해 압축 요약하고 문항에서 논리적 오류를 비롯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묻기가 쉽지 않았다. 과학적, 기술적인 사실 관계를 따지고 정합성 측면에서 검증받기가 어려웠다는 점은 기술 영역 출제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웠다.

02

의미있는 시작, **경북 수능 모의평가 문항 제작****3. 어려움 속에서도 발견한 의의**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출제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어려움들은 평가 문항에 대한 교육적 심미안을 발견하게 하는 데 충분한 기여를 했다. 대부분의 출제가 그러하듯 초안을 작성하고 팀원들을 비롯하여 다른 팀의 출제 교사들에게 확인 검토를 받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가 영역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대학 교수님들까지 초빙해 확인과 검토의 과정을 거쳤고 피드백을 받아 수없이 많은 수정 작업을 실시했다. 세세한 것들까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검토와 수정의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 지남하고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내가 출제한 영역은 전문가를 쉽게 섭외하기 어려워 출제자 선생님 중 본인의 조카와 연결해 주신 분도 계셨다. 그 분은 OO전자에서 근무하시는 전자계열 전문가셨는데 블랙체인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기술적 정합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런 일들을 비롯하여 검토와 수정의 여러 과정에서 출제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 더 나은 지문이나 선지가 완성되는 경우도 많았다. 많은 출제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충분히 살리기를 원하지만 객관적인 시선으로 점검했을 때 이해가 어렵거나 종의적으로 해석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돌이 깎여 나가듯 깎이고 다듬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남한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 뒤에 수 천 명의 비슷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출제 당시 보이지 않던 학생들의 시선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영역별 문항 설계가 갖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4. 시험과 학생들 반응

오랜 시간과 출제 선생님들의 고심을 담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2회 분량의 모의고사는 비록 국어와 수학 두 과목만 만들어졌지만, 타당도와 완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험지가 완성되고 나서 치른 9월 모의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동일한 지문 1개를 비롯해 유사 지문과 문항 등이 여러 개 출제되면서 첫해의 업적 치고는 아주 훌륭한 성과를 냈다. 출제자로서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경북형 수능 모의고사를 치를 때마다 몇몇 학생들을 인터뷰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는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연계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상기해 복습하는데 용이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실제 평가원에서 연계되어 출제된 모의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에서 유사 지문과 비슷한 패턴의 문항들이 출제 됨에 따라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

돌이켜 보면, 제재를 선정하면서 최근 기출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자체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부터 교육과정 상의 성취기준을 근거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 문항을 설계하

03

| 의미있는 시작, **경북 수능 모의평가 문항 제작**

고 난이도와 학생들의 반응을 예측하며 중의성과 오류없게 출제하기 위해 수없이 수정한 일 이런 과정들이 교사와 학생 모두를 성장시켰다는 생각이 든다.

5. 기대와 제언

2025년도에도 2026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경북형 수능 평가 문항 제작이 진행된다. 올해는 영어까지 총 3과목이 제작되고 경북 학생들만을 위해 경북의 국어, 영어, 수학 교사들이 힘을 모으게 되었다. 작년처럼 올해도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가 문항이 설계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생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일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결코 쉬운 과정이 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써 한 걸음 더 내 딛고자 함은 우리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 때문이 아닐까? 이런 노력과 아이들을 향한 경북 국어교사들의 사랑과 열정이 아이들에게 꼭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언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026학년 ‘경북 수능 모의평가 문항 제작’ 파이팅!

03

태용이의 바이올린을 위한 도전!

도전! 꿈 성취 인증제 도전기

이은결 도송중학교 학부모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를 통해
훌쩍 성장한 태용이의 참여 소감을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는 태용이의 동생이 재작년 선주의 열 탐방 프로그램에 도전하여 금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때 태용이는 탐방을 함께 했지만, 인증제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아 인증받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2024년에 교육감 인증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인문·봉사·체육·예술의 4가지 활동 영역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잠재 능력과 끼를 발견하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자기 성장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태용이는 평소 바이올린 연주를 좋아해 교육감 인증제의 여러 프로그램 중 꿈다락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꿈다락 챌린지 프로그램 음악 부분에는 총 10개의 곡을 도전해야 하는 데 현재 배우고 있는 곡들과 평소 연주해 보고 싶은 곡을 선정해 연습 기간을 정하고 계획을 짰습니다.

03

태용이의 바이올린을 위한 도전! **도전! 꿈 성취 인증제 도전기**

도전 초반에는 책상 한쪽에 붙어있는 계획표를 보며 열정을 가지고 연습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태용이를 보니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전의 중반쯤에 왔을 때는 덥고 습한 날씨와 계속되는 연습에 지쳐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태용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처음 도전할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끝까지 도전을 이어 갈 수 있을 거라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함께 산책을 하며 도전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줄이며 스스로 세운 목표에 대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03

태용이의 바이올린을 위한 도전! **도전! 꿈 성취 인증제 도전기**

이 과정을 통해 사춘기에 있는 태용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쌓인 것 같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용이는 중학교 입학해 자유훈 동아리인 바사모 (바이올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인증제를 통해 연습량이 많아지며 동아리 활동에 더욱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스승의날 감사 연주회, 등교 연주회,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 봉사 연주회 등 여러 연주회에 참가하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꿈다락 챌린지 결과 보고 후 장학사님의 추천으로 태용이의 도전 과정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인증식에서 사례발표도 하고 표창도 받게 되었습니다. 태용이 자신도 믿기지 않는지 얼떨떨해하기도 했습니다. 시상식에 참여해 사례발표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태용이의 모습에 인증제를 도전하며 함께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태용이가 자랑스러워 힘껏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묵묵히 목표를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해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태용이 스스로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끈기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던 같습니다. 인증을 준비하는 기간에 태용이의 키가 10cm나 훌쩍 자랐습니다. 자란 키 만큼 생각도 깊어지고 마음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알차게 보내고 멋지게 성장한 모습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저는 배움이 가득한 프로그램인 교육감 인증제 도전 꿈! 성취 프로그램을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교육감 인증제에 도전해 성장하는 자신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전! 꿈 성취 화이팅!**



경북교육 WEBZINE



Part

04

연구

Academic

문제

성취

도전

교육

성취

01

경북교육종단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

이동욱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연구원



1. 연구 배경

한국 교육의 미래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김민하, 2021:21-39; 배성아 외, 2019:866-870; 강차선, 2016:255-258; 김요한, 2015:27).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원격교육 경험·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동안 원격수업이 학습격차를 심화시켰으며, 교사의 79%가 이에 동의했다. 특히, 그 원인으로 64.92%가 학생 간 자기주도학습 능력 차이를 지목하며, 자기주도학습이 학습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성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 역량으로 부각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한국 교육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2017).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분석 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학업 성취도는 높지만 자기주도학습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주도학습 시간은 증가하지만, 학습능력 향상은 정체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주영, 2019; 박찬호 외, 2023:211-215; 한국경제연구원, 2017). 이는 적극적인 교육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주도학습이 강조될수록 창의융합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며(심미정 외, 2012:333-334; 김지연 외, 2022:179-182), 학습몰입과 학습만족도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학교생활 적응력까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이, 2020:826-829; 정준영 외, 2021:261-264; 오지현, 2020:1030-1031). 또

01

경북교육중단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천하는 학생들은 우수한 의사소통 능력을 보이며,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윤지연 외, 2011:226-228; 이강우, 2023:47-49).

진로 개발 및 직업 세계에서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빠르게 높아지며, 이는 단순한 학업 성과를 넘어 졸업 후, 직장 내 혁신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지현 외, 2022:125-129; 황서현, 2015:240-243).

특히,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분석 결과, 현재의 자기주도학습 수준이 미래의 학습 태도와 지속적인 성과 향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오희정, 2020:728-729). 이는 단발적인 개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연구와 교육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기주도학습이 학업, 심리·정서, 진로 및 직업 역량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 수준은 여전히 낮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정은이, 2020:826-829; 윤지연 외, 2011:226-228; 심미정 외, 2012:333-334; 김지연 외, 2022:179-182; 한국경제연구원, 2017).

자기주도학습은 부모, 교사, 또래 친구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김민하, 2021:21-39; 배성아 외, 2019:866-870; 강차선, 2016:255-258), 특히,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향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강차선, 2016:255-258; 배성아 외, 2019:866-870).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원활할수록 학생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학습에 몰입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허예빈 외, 2012:1088-1091; 김요한, 2015:27). 무엇보다, 또래 친구들 간의 상호 지지는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기주도학습 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전중원, 2021:80-81; 고경희, 2020:33).

따라서, 청소년들의 창의력 향상, 학업 몰입, 문제해결능력 증진 및 학습만족도 강화를 위해,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는 사회적 지지 요인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핵심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정준영 외, 2021:261-264; 정은이, 2020:826-829; 오지현, 2020:1030-1031; 심미정 외, 2012:333-334; 김지연 외, 2022:179-182). 그러한 의미에서, 경북교육중단연구와 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연구를 더욱 정교화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 개입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경북교육중단연구 예비조사 결과 중에서 자기주도학습 관련 항목 결과 요약 및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영향관계 탐색: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심’의 심화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01

경북교육중단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

II.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관련 변인 수준

예비조사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 관련 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웹 기반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초등학생 117명, 중학생 199명, 고등학생 161명 총 477명의 응답 자료가 분석되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학습동기, 학업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주도학습 수준

학교급별 자기주도학습 수준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평균 점수는 3.76점, 중학생은 3.47점, 고등학생은 3.61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에서 급격히 감소한 후, 고등학교에서 다시 다소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초·중·고 집단 간 평균 차이($F=6.90$,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학령에 따라 자기주도학습 수준이 변동하는 패턴이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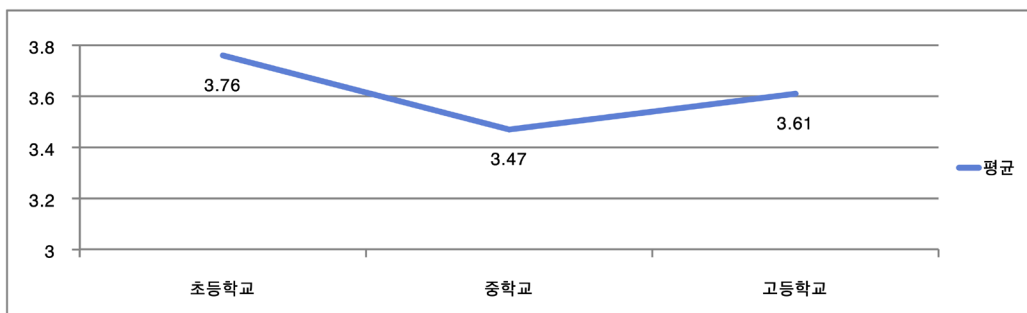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시기가 학습 환경과 학습 태도의 중요한 변화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 시기에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과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중학교 시기에 자기주도학습 동기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습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동기 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전략이 요구된다.

〈표 1〉 초·중·고 자기주도학습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자기 주도 학습	초등학교(a)	117	3.76	0.66	1.67	5.00	6.90***	b<a
	중학교(b)	199	3.47	0.69	1.00	5.00		
	고등학교(c)	161	3.61	0.67	1.11	5.00		
	전체	477	3.59	0.68	1.00	5.00	-	-

*** $p<.001$

[그림 1] 초·중·고 자기주도학습 평균



01

경북교육중단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

2. 학습동기 수준

학교급별 학습동기 수준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평균 점수는 3.74점, 중학생은 3.20점, 고등학생은 3.21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습동기가 가장 높은 반면, 중학교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큰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초·중·고 학습동기 수준 간의 평균 차이 ($F=17.25$,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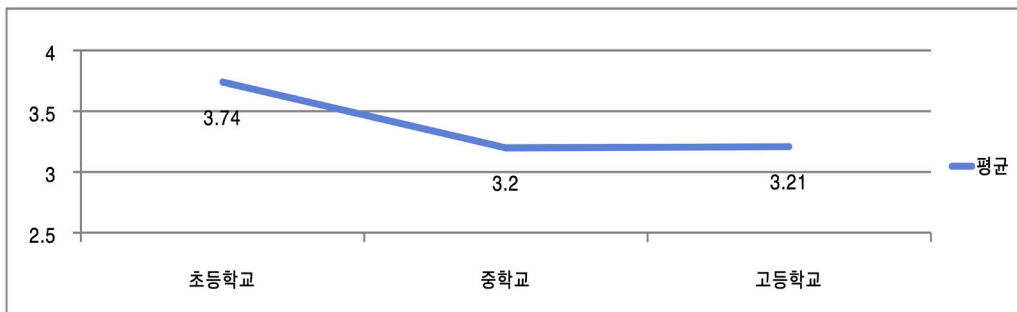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시기가 학습동기 저하의 주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 시기에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을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습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맞춤형 동기 강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학습동기가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로 진학할 때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열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습동기가 중학생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시 부담과 학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내재적 동기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학습에 대한 자율성과 지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과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학습 목표 설정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2〉 초·중·고 학습동기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학습 동기	초등학교(a)	117	3.74	0.81	2.00	5.00	17.25*** b,c(a)
	중학교(b)	199	3.20	0.87	1.00	5.00	
	고등학교(c)	161	3.21	0.87	1.00	5.00	
	전체	477	3.33	0.89	1.00	5.00	-

*** $p<.001$

[그림 2] 초·중·고 학습동기 평균



01

경북교육중단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

3. 학업스트레스

학교급별 학업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평균 점수는 2.99점, 중학생은 3.25점, 고등학생은 3.36점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초·중·고 집단 간 평균 차이($F=6.28$,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학교 시기에 학업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고등학교에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학업량과 평가 방식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경쟁 심화로 인해 학업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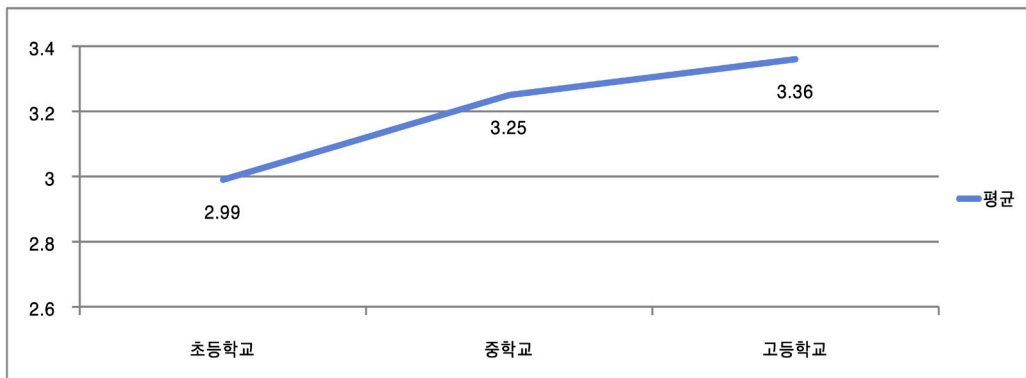
이를 위해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강화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학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정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 초·중·고 학업스트레스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자기 주도 학습	초등학교(a)	117	2.99	0.87	1.00	6.28**	a(b,c)
	중학교(b)	199	3.25	0.80	1.00		
	고등학교(c)	161	3.36	0.92	1.00		
	전체	477	3.22	0.87	1.00		

** $p<.01$

[그림 3] 초·중·고 학업스트레스 평균



01

경북교육중단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

Ⅲ.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영향관계 탐색: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심

심화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및 자아존중감 변인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경북교육중단연구 예비조사’의 중·고등학생 36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남학생 188명(52.2%), 여학생 172명(47.8%)으로 구성되었으며, 중학생이 199명(55.3%), 고등학생이 161명(44.7%)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활용된 예측변인 및 반응변인의 평균값은 부모자녀관계 3.87~4.00점, 교사관계 3.63~3.72점, 친구관계 3.60~3.71점, 자아존중감 3.45~3.71점, 자기주도학습 3.45~3.58점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자녀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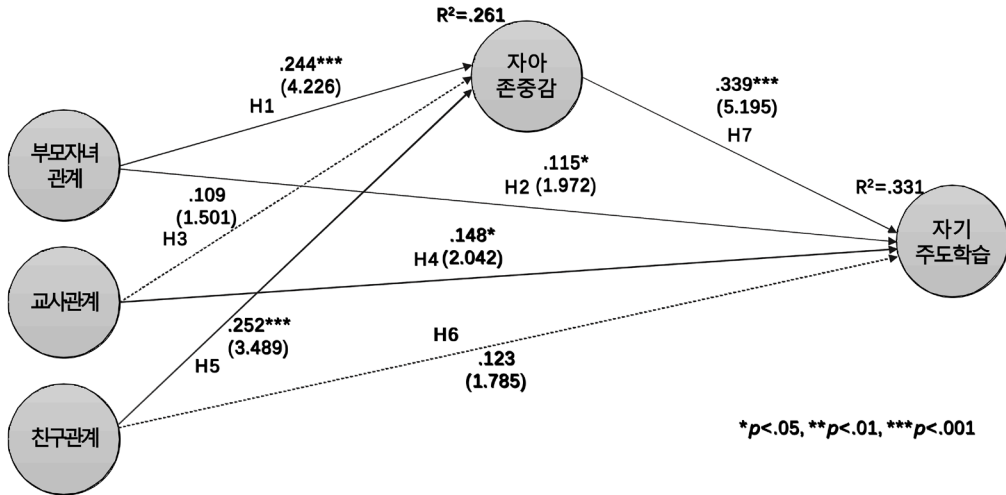
〈표 4〉 구조모형의 가설 검증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β)	t (p)	BCa 95% CI	결과
직접 효과					
H1	부모자녀관계 → 자아존중감	.244	4.226 (<.001)	[.122, .351]	채택
H2	부모자녀관계 → 자기주도학습	.115	1.972 (.049)	[.007, .227]	채택
H3	교사관계 → 자아존중감	.109	1.501 (.134)	[-.028, .265]	기각
H4	교사관계 → 자기주도학습	.148	2.042 (.042)	[.003, .288]	채택
H5	친구관계 → 자아존중감	.252	3.489 (<.001)	[.105, .380]	채택
H6	친구관계 → 자기주도학습	.123	1.785 (.075)	[-.002, .255]	기각
H7	자아존중감 → 자기주도학습	.339	5.195 (<.001)	[.210, .458]	채택
간접 효과					
H8	부모자녀관계 → 자아존중감 → 자기주도학습	.083	3.14 (.002)	[.038, .141]	채택
H9	교사관계 → 자아존중감 → 자기주도학습	.037	1.457 (.146)	[-.006, .097]	기각
H10	친구관계 → 자아존중감 → 자기주도학습	.086	2.77 (.006)	[.034, .151]	채택

01

경북교육중단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

[그림 4] 구조모델과 관련한 연구가설 검증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부모자녀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beta=.244$, $p<.001$), 친구관계 역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52$, $p<.001$). 이는 이전연구의 결과(김미경 외 2019, 764-766; 이윤정, 2019:1204-1205; 조미경 외, 2021:220; 정병삼, 2010:14-22; 조소영 외, 2022:69-75)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한 대화 활성화를 넘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 구성원의 성격유형을 파악하는 심리검사를 활용하여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모역할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가족 프로젝트나 가족 캠프 등을 활용하면 부모자녀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세대 간 갈등을 조율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열린 태도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편, 친구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정서적 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공감 능력, 협력, 갈등 해결 및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창우, 2013; CASEL, 2015). SEL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며, 건강한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01

경북교육중단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

전략을 습득하여 또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 및 친구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와 교사관계는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모자녀관계는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에서 표준화경로계수($\beta=.115, p<.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교사관계는 자기주도학습에 표준화경로계수($\beta=.148, p<.05$)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피드백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청소년기의 학습 동기 촉진을 위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더욱 강조해야 함을 의미한다(배성아 외, 2019; 강차선, 2016; 김윤지 외, 2014; 허예빈 외, 2012; 박은희, 2019; 최향, 2012). 이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 코칭 및 자기주도학습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역할은 단순한 학습 관리에서 벗어나, 자녀가 학습에 대한 동기를 내재화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습 환경 조성법, 긍정적 피드백 제공 방법,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전략을 교육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교사의 경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지도법과 동기 유발 전략을 포함한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여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하는 수업 설계법과 자기조절 학습 전략을 지도하는 교사 연수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학습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 교사 연수, 학교 내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역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기주도학습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beta=.339, p<.001$), 부모자녀관계와 친구관계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기주도학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자녀관계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으며($\beta=.083, p<.01$), 친구관계 역시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086, p<.01$).

01

경북교육중단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이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는 교육적 개입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전중원, 2021; 고경희, 2020; 정지은 외, 2015).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경향이 강하며, 학습에 대한 동기와 집중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과 학습 상담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부모자녀관계 및 친구관계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기존 연구(김용필, 2018; 정지은 외, 2015; 남지영 외, 2021; 김요한, 2015)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 및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학습 지도에 국한되지 않고,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심리적·사회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학교 내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연구결과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경북교육중단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음**

〈참고문헌〉

- 강차선, 박정환. (2016). 제주지역 중학생의 부모의사소통과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1), 251-260.
- 고경희. (2020). 초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가 자기주도학습과 학습행동전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 김미경, 조규판. (2019). 청소년이 지각한 자기애적 성향,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5), 757-775.
- 김요한. (2015). 초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 김용필. (2018).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김윤지, 김정섭. (201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학습

01

경북교육중단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

- 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0), 47-65.
- 김지연, 김기홍. (2022).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소통역량과 창의융합역량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4), 173-187.
- 김지현, 김홍미. (202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능력,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교육학연구, 60(5), 113-140.
- 남지영, 정해원. (2021). 중학생의 친구 및 교사관계와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1279-1298.
- 박은희. (2019).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육논총, 40(1), 1-16.
- 박찬호, 김선미, 이수빈. (2023). 자기주도학습역량의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의 적용. 교육문화연구, 29(6), 203-222.
- 배성아, 성소연. (2019).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859-877.
- 심미정, 오효숙. (2012).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328-337.
- 오지현, 김지선. (2020). 긍정심리자본, 자기주도학습, 사회적지지가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1021-1037.
- 오희정, 김갑성. (2020).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및 독서활동과 학업성취도 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719-738.
- 윤지연, 이종호. (2011). 사이버교육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자아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이강우. (2023).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 이윤정. (2019).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교사·친구지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2), 1197-1210.
- 이주영. (2019).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시간과 학습전략 간의 관계: 학습동기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4), 827-844.
- 전중원. (2021).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학습전략, 학교적응, 자기주도학습 간의 구조적 관계. 초등교육연구, 34(3), 69-90.
- 정병삼. (2010).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4), 5-30.
- 정은미. (2020).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중·고 학생의 비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3), 815-840.
- 정준영, 송선희. (2021).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257-267.
- 정지은, 정철영. (2015).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7(1), 79-96.
- 정창우. (2013).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체계와 도덕적 교육의 함의. 도덕윤리교육, 38, 158-172.
- 조미경, 김상철. (2021). 어머니의 양육태도,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7), 209-228.
- 조소영, 김진숙. (202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12), 59-87.
- 최향. (2012).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한국경제연구원. (2017).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한국인의 역량과 교육 개혁.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COVID-19 대응 1학기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조사 분석 결과 발표.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허예빈, 김아영. (2012).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6(4), 1075-1096.
- 황서현. (2015). 호텔 직원의 자기주도학습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직업소명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18(3), 227-248.
-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2015). Definition of SEL. Chicago: CASEL.

온앙을

2025년 봄호

Vol. 09

발행일	2025. 3.
발간등록번호	2025-5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총괄	기획예산관 박귀훈
편집주간	기획예산관 장학관 정기호
편집담당	기획예산관 주무관 박지현
주소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연락처	TEL. 054-805-3116 FAX 054-805-3149
홈페이지	http://www.gbe.kr
디자인인쇄	주식회사맹그라미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